

국외출장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출산수준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
- 출장일정: 2012년 5월 3일 ~ 2012년 5월 7일 (3박 5일)
- 출장지역 및 방문기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국인구학회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 관련과제: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2 출장지별 주요활동

- Partners and Childbearing 목요일 3:30-5:20
 - 가족 내 성평등에 주목한 Nitsche는 엄마와 아빠의 상대적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엄마의 소득이 아빠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첫째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으나 이럴 경우 둘째 자녀를 낳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
 - 자녀출산에 대한 부부간 합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 Testa, Cavalli, 그리고 Rosina는 첫째와 둘째 자녀를 낳는데 부부간의 합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위의 출산순위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 덧붙여, 많은 연구결과들처럼, 남성의 의도보다는 여성의 의도가 출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Assessing the Impact of Contraception and Family Planning 금요일 8:30-10:20
 - 전세계적으로 출산률이 저하하는 시기에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김영일(서강대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김영일은 가족계획프로그램의 효과가 상당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가족계획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일인당 GDP가 \$1000에서 \$2000인 곳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중요한 변수로 종교를 거론하였는데 토론자 사이에서 중

교와 지역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중국에서 가족계획정책을 연구한 Wang은 정책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며 이 방식이 정책의 역사나 출산율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덧붙여 학력이 높거나,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첫째 아이가 아들인 여성의 경우에 출산율 억제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 Talk with 우혜영(Portland State University 교수) 금요일 10:30-12:20

- 미국에서 한국의 출산율을 연구하고 있는 우혜영교수와 면담이 있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출산력조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중요한 연구이지만 출산이 여성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Fertility Timing 금요일 12:30-2:20

- 본 과제와 매우 밀접한 내용을 발표하는 Michelle K. Blocklin과 동료들의 연구를 청취하였다. 직장 내 지원의 문제와 가족과 일의 균형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들으면서 본 과제의 발전방향 및 분석방향, 분석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직장이동의사가 있는 경우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임신 또한 늦어진다는 연구결과는 본 과제에 매우 시사적이다.

□ 여러 교수님들과의 면담 금요일 2:30-4:20

- 조용태(서울대교수), 박현준(University of Pennsylvania 교수), 김창환(University of Kansas 교수), 계봉오박사(Cornell Postdoc)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현준교수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인구센터와 보건사회연구원과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 Fertility Attitudes and Intentions in Low-Fertility Societies 토요일 10:30-12:20

- 유럽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Testa는 논문심사와 일정이 겹치게 되어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다른

연구자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종교와 교육수준이 출산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내총생산이라는 거시적 변수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

-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김혜원박사의 발표를 청취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을 사용하여 출산의사와 실제출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매우 흥미롭게도 발표에서 제시한 표를 보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현재까지의 본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보다 건설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향후 지속적인 연구결과 교류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 Education and Health Behaviors 토요일 12:30-2:20

- 미국에서 고등학교 중퇴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시험을 통해 얻은 고등학교 졸업장 수여자 사이의 건강 차이를 연구한 본인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